

게임으로 보는 퍼스널 컬러와 경제의 연관성

산업경영공학과 김민지

I 개요

6/7에 퍼스널 컬러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다. 원톤과 쿨톤, 그에 따라 나뉘는 4가지 색의 계열과 그 속에 나뉘는 8가지의 톤(Tone)은 나에게 신세계였다.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따른 화장법과 패션은 나중에 내가 옷을 구매할 때 참고할 듯하다.

퍼스널 컬러, 즉 색상이 우리 일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색상이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MMORPG 게임 「마비노기」 속 색상의 기능과 경제 사회의 일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II 사전 지식: 「마비노기」란?

「마비노기」는 2004년부터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MMORPG 게임이다. 당시에 출시하던 MMORPG들은 기존에 흥행하고 있던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나 「메이플스토리」 같은 고전 MMORPG들과 차별점을 두었던 특징이 있다. 이때 「마비노기」가 내세운 차별점은 '생활형 콘텐츠'였다. 전투나 캐릭터 육성 이외에 농사와 낚시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주력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요소는 무기 단조와 같이 캐릭터 육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색 시스템인 것이다. 이후에 자세히 다루기 전, 컴퓨터에서 색상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RGB 가산 혼합(RGB 加算混合)은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빨강(RED), 초록(GREEN), 파랑(BLUE) 세 종류의 광원(光源)을 이용하여 색을 혼합하며 색을 섞을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가산 혼합'이라고 한다. R, G, B에 해당하는 값은 0~255 사이의 값으로 하며, 그 값이 클수록 색의 채도가 높아진다. 오른쪽의 그림 'RGB의 큐브 모델'과 같이 하나의 색은 삼원색을 기준선으로 하는 삼차원 직교 좌표계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삼원색 좌표는 (R, G, B)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검정은 세 광원 모두 빛이 없는 상태이며 좌표(0,0,0)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빨강색은 (255,0,0), 초록색은 (0,255,0), 파랑색은 (0,0,255)이며, 빨강색과 파랑색의 가산혼합의 결과인 보라색은 (255,0,255)로 표현할 수 있다.

III 서론: 색이 매우 중요한 그들

MMORPG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는 「마비노기」에서는 그 종류만큼 수많은 방식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식은 바로 "룩"이다. 멋있는 외형을 만들어 자신의 캐릭터가 강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마비노기」의 룩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옷, 그리고 예쁜 색상이고, 이때 등장하는 게 염색 시스템이다. 제 아무리 같은 옷이더라도 그 색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달라보였기에 「마비노기」에서 색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비노기」에서만 사용되는 특유의 색상 관련 언어들이 존재한다. 우선 RGB 코드를 기준으로 특정 색상에 대한 이름을 붙여 부른다. 대표적인 예시로 “리얼 블랙 (0,0,0)”, “리얼 화이트 (255,255,255)”, “다크 초코 (36,19,15)”가 있다. 이외에도 게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색상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으며 그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마비노기」 유저들은 특정 색을 지정하여 그 색만으로 코드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색을 “지향색”이라고 부른다. 가끔 자신의 지향색을 다른 유저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해당 유저에게 다른 색으로 코디하라고 핍박 아닌 핍박을 하는 “지향부심”이라는 문화가 있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RGB 값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를 “유사 색”이라고 부르면서 기존의 색상과 엄연히 구분 짓는 등 색상에 매우 민감한 「마비노기」 유저들의 태도이다. 심지어 육안으로 색상을 보고 해당 색상의 이름과 그 RGB 값을 말하는 일부 「마비노기」 유저들을 보면서 ‘눈에 포토샵을 장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ⁱ

IV 본론: 그들이 포토샵을 장착하게 된 이유

「마비노기」 유저들은 왜 이리 색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의상 코드를 위한 염색 시스템이 「마비노기」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

기본적으로 마비노기의 의상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염색 앰플”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는 게임에서 특정 유료 재화 상품을 구매하여 얻거나 게임 내에 존재하는 거래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염색 앰플” 아이템을 이용하게 되면 염색 팔레트와 5개의 커서가 나타난다. 이 5개의 커서를 동시에 움직여서 염색 팔레트를 클릭하면 각 커서가 가르킨 색상 5종 중에 1종류로 아이템이 염색이 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먼저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정확히 클릭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다. 이는 나중에 RGB 값을 입력하면 해당 값의 색상이 염색 팔레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표시하는 기능으로 아주 조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20%의 확률을 뚫고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되길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물론 이들은 “다이렉트 염색 앰플”과 같이 “염색 앰플”의 상위 호환인 아이템을 사용하면 모두 해결되지만, 그러면 약 50배의 훨씬 비싼 금액을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만다.ⁱⁱ



이런 “염색 앰플”의 기본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래와 같다. 「마비노기」 유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하기 위하여 해당 색상의 RGB 값을 알아보고, 스스로 정리하게 된다. “염색 앰플”을 이용하여 염색할 때도 RGB 값이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 이벤트를 통해 “지정 색상 염색 앰플”이라는 상위 호환 아이템을 만들고자 할 때도 그 색의 RGB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비슷한 색이어도 각자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하는 것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 일부 「마비노기」 유저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색상의 “지정 색상 염색 앰플” 아이템은 다른 색상의 “지정 색상 염색 앰플” 아이템보다 훨씬 비싼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정 색상의 인기는 마치 ‘올해의 컬러’처럼 하나의 유행으로 이어져서 거래소 시스템을 통하여 보면 어떤 색상이 「마비노기」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

V 마치며

이번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평소 소문만 들었던 「마비노기」라는 게임과 그 유저들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게임과 이번 보고서 주제를 연관시킴으로써 퍼스널 컬러라는 내게 다소 낯선 주제에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ⁱ <https://youtube.com/shorts/prKfl1p8XKA?feature=share> 영상은 2022년 6월 말에 진행된 마비노기 쇼케이스 행사의 일부인 ‘마비노기 색깔 맞추기’이다. 프로젝트 특성상 해상도가 떨어져 구분

이 잘 안됐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힌트들로 고작 7분만에 주어진 문제들을 모두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 <https://youtu.be/MezZgsLzzxw> 한 「마비노기」 유저가 새로 구매한 의상을 특정 붉은 색으로 염색하기 위해 수많은 "염색 애플"을 쓰는 영상이다. 그러나 20%의 확률로 끝끝내 원하는 붉은 색상으로 염색이 되질 않자 결국 훨씬 비싼 값으로 "다이렉트 염색 애플"을 구매하고 만다.